

정통부 2000년 주요업무 계획

정보통신부는 올해 국내 정보화정책에 대한 '정보통신부 2000년 주요업무 계획'을 확정·발표했다. 이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'사이버코리아21'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시행되는 것으로서 정부의 지속적인 정보화 추진 의지를 엿보게 한다.

국가사회 정보화 촉진 사업에 전국 144개 통화권역 실현. 155Mbps~2.5Gbps급 광케이블 조기 실현. 정보화 기술개발을 신 산업육성 사업에서 IMT-2000·위성방송·인터넷 등 디지털컨텐츠 적극활용. SW산업 창업인프라 지속 확충. 7천억원 투자 차세대 핵심기술 6대 분야 전략적 개발. 정보통신 100여개 중소기업 육성 대기업 대체보완 사업 등 통신과 전파자원의 이용촉진사업에 대국민통신비밀보호 강화. 위성궤도·주파수 등 국제 배분 전파자원의 최대한 확보. 통신위성 국산화 사업 등을 중점 사업으로 하고 있다.

이에 정통부의 2000년 주요 업무 계획 4개 사업부문의 내용을 원문 그대로 게재한다. [편집자 주]

I. 국가사회 정보화 추진

기본방향: 세계 10대 지식정보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사이버코리아21의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

1. 초고속정보통신망 조기 구축

- * 당초 2010년 예정돼 있던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계획을 2005년까지 앞당겨 추진하기 위한 세부집행계획을 수립·시행
- * 기간전송망은 전국 144개 통화권 역에 155Mbps~2.5Gbps급의 광케이블 구축을 2년 앞 당겨 완료(4천6백57억원)
 - 15개 주요 도시에 ATM교환기 29대를 추가설치하고 반전자식교환기 1백90만6천회선을 디지털방식으로 교체
- * 초고속가입자망은 ADSL, CATV 등을 총체적으

로 활용해 중소도시까지 고속 정보통신서비스 제공환경을 구축하고 2백만 가구(전체가구의 1.25%)이상의 가입자를 수용

- 도서·벽지 등 원격지역에 위성인터넷 등 무선망을 활용, 인터넷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환경 조성
- * 인터넷 수요 증가에 부응하여 현재보다 1,000배 빠른 차세대 인터넷서비스에 대비한 종합계획을 수립

2. 정보화 촉진

- * 공공, 금융 등 4대 부문 개혁에 정보기술(IT)을 접목시켜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보화 정책을 추진
- * 정부와 공기업은 내부행정과 민원행정, 물자구매, 고객서비스 업무처리 등을 정보화 하여 서비스와 생산력 향상

- 시·군·구 행정종합정보화 확산, 호적민원 온라인 처리 등 39개 부처 청의 166개 사업에 총 6천7백12억원을 투자
- 정보화전략회의와 정보화추진위원회를 통하여 분야별 정보화정책을 종합·조정하고 정보화예산 사전협의를 실시하여 중복투자를 방지
- 공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'99년에 수립된 기업별 정보화 전략계획의 추진 실적을 경영평가에 확대 반영
- * 민간부문 정보화 유도를 위해
 - 정보화사회로의 전환에서 장애가 되는 법령을 지속 정비
 - 저렴한 요금으로 인터넷을 24시간 이용토록 정액요금제 확대
 - 기업간 전자거래(CALS)시범사업을 조선, 철강, 기계분야 등으로 확대
 - 저렴한고 편리한 표준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(ERP)을 중소 정보통신기업에 시범구축

3. 정보화 교육 확대

- * 학교전산망, 교육용 PC보급 등 학교 정보화의 교육기반을 금년내 완결
 - 학교별로 1명씩의 정보화 선도교사를 선발, 학교정보화의 CIO로 활용
- * 전국 800여개 컴퓨터학원에 '주부인터넷교실'을 개설하여 기계활동의 중심이 되는 전업주부 1백만 명에게 컴퓨터교육을 실시
- * 지역주민들에게 정보화 교육기회 확대 및 고속인터넷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해
 - 중소도시의 우체국에 25개 정보교육센터를 설치하고 농어촌 및 도서·산간지역의 우체국에 100개 위성인터넷 플라자를 설치
- * 누구나, 언제, 어디서나, 쉽게 교육기회를 갖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평생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기술(IT)을 활용한 원격교육 활

성화 지원

4. 정보화역기능방지

- *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함께 급증하고 있는 정보시스템 침입, 불건전정보 확산, 개인정보 오·남용 등 역기능 방지대책을 적극 추진
 - 정보보호에 대한 세계적 동향을 파악하고,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적정보보호 추진체계를 확립
- * 정보보호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관련산업을 육성
 - 산·학·연 공동으로 암호 알고리즘, 전자서명, 국제상호인증 등 핵심 정보보호 기술개발 및 기술이전을 촉진
 - 바이러스·해킹 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, 민간 백신업체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
- * 누구나 안심하고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 마련
 - 민간의 암호이용 활성화를 위해 (가칭)암호이용 촉진법 제정 검토
 - 사이버 테러 등으로부터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를 위해 (가칭)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을 관계기관과 협의
- *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, 학부모 정보감시단 등 시민단체의 범국민적 운동을 지원
 - 국민 스스로 정보화역기능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

5. 계층별 정보격차 시정

- * 정보의 활용에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회적 약자가 지식 정보사회에서 또 다른 소외계층이 되지 않도록 장애인, 여성, 저소득층 등 취약한 계층에 대한 정보화 지원을 확대
- * 정보화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 확대

- 장애인과 여성의 기초적인 정보이용능력 향상을 위해 장애인 관련단체, 일하는 여성의 집 등을 지원
- 취업을 위한 전문능력 함양을 위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생활보호대상자, 청소년가장 등에 대한 SW기술교육 실시
- 전국 12개 소년원에 정보화 교육장을 구축하여 보호소년(약 2,500명)에게 전 교육 실시
- * 인터넷 PC의 규격개선과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저소득 계층에 대한 PC보급 확대
- * 장애인이 정보통신기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 웹브라우저 등의 기술을 개발하여 무료 또는 저가로 보급
- * 언제, 어디서나, 모든 국민이 적당한 요금으로 기본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편적인 서비스 제도를 조기에 정착

II. 정보통신에 기반을 둔 신 산업

기본방향: 가치창출의 새로운 원천인 인터넷기반의 신 산업과 정보통신산업을 활성화해 수출 4백50억달러 · 무역흑자 1백40억달러 달성

1. 인터넷산업 활성화

- * 인터넷산업은 경제성장과 고용증가를 주도하고 물가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모델로 급부상
- * 전자상거래, 인터넷 광고, 인터넷 방송 등 인터넷 기반의 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관련법 · 제도를 조기에 정비
 -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도입, '전자자금이체법' 제정, 부가가치세 감면 등 지원방안을 강구
 - 인터넷 관련기업의 적정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인터넷 산업 자금조달의 건전

화를 유도

- * 인터넷산업을 적극적으로 개척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
 - EC, 멀티미디어 제작, 웹마스터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'전자상거래관리사'를 국가 자격으로 도입
 - 3차원 사강 현실기술, 광대역전송(IPOW)기술 등 전자상거래 기반조성을 위한 기술개발 · 표준화 등을 지원

2. 디지털 콘텐츠산업 육성

- * 범세계적인 인터넷 확산과 IMT-2000, 위성방송, 디지털방송 등에 활용될 디지털 콘텐츠개발을 적극 지원
 - 정보화근로사업을 통해 개발된 90여만 건의 영상자료로 디지털뱅크를 구축하고, 중소기업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
 - 문화유산, 역사 등 국가차원의 인프라성격이 강한 약 30개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개발
 - 정부가 보유한 공공정보 중 공개 가능한 정보를 민간이 디지털 콘텐츠로 개발하여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
- * 콘텐츠업체의 창업을 지원하고, 투자위주의 자금지원을 확대
 - 콘텐츠 전문투자조합을 설립하여 투자자금을 지원
 - 대학에 축적된 지식정보자원을 디지털 콘텐츠화 하도록 대학 내의 IP창업을 지원
 - 인터넷방송 등 콘텐츠산업활성화를 위해 고가 장비의 공동활용 등을 지원
- * 콘텐츠의 영문화 전문회사를 설립하여 국내업체의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
- * DB보호법 제정 등 관계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여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

3. SW산업의 경쟁력 강화

- * SW산업의 창업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
 - 전국 24개 지역에 소프트웨어타운을 조성하고, 서울 소프트웨어타운을 중심으로 네트워크화
- * SW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계시장과의 인적·기술적·마케팅 네트워크를 강화
 - 교포2세·유학생 등의 현지 창업을 지원하고, 국내 유망벤처기업을 이들과 연계하는 한민족 SW네트워크 구축
 - 한·스탠포드협력사업 등 국제협력활동을 통해 세계적인 벤처캐피털·마케팅업체 등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
- * JAVA 인력양성, 카네기멜론대학의 SW엔지니어링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전문인력을 원활히 공급
 - 선진국 유학인력의 병역 관련 제도개선을 관계부처와 협의
- *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리눅스(Li-nux)관련 프로그램, 컴포넌트 SW 통신기술분야를 적극 지원
- * 우수한 기술을 가진 중소 SW벤처기업이 시장에 용이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
 - SW계약제도를 최저가 입찰방식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, SW품질인증제를 도입

4.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

- * 차세대 인터넷, 디지털방송, 무선통신 등 6대 중점분야의 차세대 핵심기술을 전략적으로 개발(7천36억원)
- * 시장 지향적인 연구개발체제를 갖추고 산업체의 역할을 강화
 - 초고속망장비 등 시장확대가 전망되는 유망 핵심기술을 민·관 공동으로 집중 개발하여 조기

상용화 추진

- 핵심부품기술은 산업체가 주도하여 개발 즉시 수입대체 및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, 현재 40% 수준의 부품 국산화율을 2004년까지 80% 수준으로 제고
- * IMT-2000 핵심기술과 상용제품을 자체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, 세계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
 - 세계적 기술수준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산·연·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재구축하고 정부 지원을 강화
- * 인터넷과 가전산업의 통합추세에 대응하여 디지털정보가전(Home Automation)산업을 본격 육성
 - 산·학·연의 연합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핵심 기술 개발 및 표준화를 조기에 추진

5.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

- * 지식정보사회의 새로운 고용 모델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하고, 관련 자격 관리체계를 개선
 - 웹디자인, 정보검색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직종이 나타나고 있어 민간주도의 기술교육과정 신설을 지원하고 정보 통신 기술자격체계를 개선·정비
 - 대학에 인터넷 등 관련학과와 전공의 신설을 지원하고, 정원의 증원 및 탄력적 운용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
- * 정보통신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창의적이고 현장감 있는 고급 기술인력을 양성
 - 대학의 우수한 정보통신분야 연구센터(ITRC)를 집중 육성하여 핵심기반기술을 개발하는 고급 인력을 양성
 - 정보통신을 선도하는 선진국의 우수대학에서 ASIC설계 등의 첨단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외장학프로그램을 실시

- *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에 기존 산업인력이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 전환교육과 재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, 여성 등 잠재인력에 대한 교육을 강화

6. 중소-벤처기업 육성

- * 핵심부품, 인터넷 등 10여개의 정보통신 전략분야별로 100여개의 중소·벤처기업 군을 육성해 기존 대기업의 역할을 대체·보완할 수 있도록 집중지원
 - CDMA, IMT-2000, 디스플레이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신기술 및 핵심부품 개발자금을 지원(4천1백억원)
 - 1천5백원 이상 규모의 정보통신 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하고, 정보통신 전문벤처캐피탈을 3개 추가 설립
- * 정보통신분야의 창업확산(월 평균 250개 기업)에 따라 창업기업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지원시책을 강화
 - 창업자문회사, 경영지원단 등을 통해 회계, 법률, 자금조달 등 창업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강화
 - 성공한 10여개 중소·벤처기업을 분석 연구하여 우리 고유의 벤처성공모델을 제시하고, 대학의 교재로 활용
- * 정보통신 중소·벤처기업의 충실화와 고부가가치를 위해 주문형 반도체(ASIC)산업을 집중 육성
 - 서울 강남지역에 ASIC산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창업교육, 첨단 개발장비 지원, 투자알선 및 마케팅을 지원
 - 센터를 중심으로 관련기업의 집적화를 통해 'ASIC타운' 조성을 유도

7. 세계시장진출 지원

- * 우리 나라 수출주력산업은 '60~'70년대 경공

업, '80~'90년대 중공업에서 '90년대 후반이후 정보통신산업으로 이전

- 데스크탑 및 노트북PC, 위성방송수신기, 액정모니터(TFT-LCD)등을 수출 주력상품화하고, IMT-2000, 디지털 TV 등 차세대 수출유망품목 집중 육성
- * '96년 CDMA 개발이후 외국인 장비 100% 대체와 30억달러 수출 성과를 토대로 CDMA의 본격적인 세계화를 실현
 - 중국, 베트남 등과 고위급 세일즈 외교 및 정보통신인력에 대한 초청 연수 등을 통해 CDMA 진출 실현
 - 민·관 공동노력으로 인도네시아, 태국, 필리핀 등 새로운 CDMA시장을 발굴·진출
- * 정보통신 국제협력활동 강화
 - 안정적인 투자자금확보, 첨단기술 및 선진 경영기법 도입을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지속 지원
 - 세계무역기구(WTO) 신다자협상, 한·칠레 자유무역협정 등 정보통신분야 통상협상에 능동적으로 참여
 - 미국·EU 등과의 정보통신 및 정보화 정책에 관한 교류·협력을 확대하고, 국제전기통신연합(ITU) 등 정보통신국제기구 활동에 적극·참여

정통부 정보화기반정책 추진 실적

① 정원 (2000년 1월 현재)

구 분	정무·별정직	일반직	연구직	기능직	총 계
본 부	11	437	-	93	541
직할관서	3	1,069	25	372	1,469
체 신 청	9	10,149	-	20,219	30,377
계	23	11,655	25	20,684	32,387

② 정보통신망 확충 및 정보화 확대

구 분	1998년	1999년
광케이블 포설	94개 통화권역/58,917km	107개 통화권역/80,270km
ATM교환기 설치	-	26대(10Gbps)
고속정보통신 가입자	52,300가구	590,100가구

③ 인터넷 활성화 지표

구 분	1998년	1999년
인터넷 이용자	310만명	1,080만명
PC통신 가입자	530만명	1,000만명
인터넷 도메인 수	26,100개	207,000개

④ 정보통신산업 육성

구 분	1998년	1999년
보통신 창업기업	1,738개	1,800개
정보통신 수출	305억달러	399억달러
부가통신사업자	1,781개	2,300개
이동전화가입자	1,398만명	2,340만명

* 정보통신산업의 무역후자 142억달러는 전례후자의 약 58%를 점유

⑤ 우정사업 경영혁신

구 분	1998년	1999년
우편사업 매출(후자)	1조59억원(72억원)	1조671억원(160억원)
우체국금융 수신고	20조원	25조4천억원
공공정책자금 지원	10조원	14조원

Ⅲ. 통신과 전파자원의 이용촉진

기본방향 : IMT-2000사업자를 선정, 부가통신사업 육성 등을 통해 통신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, 전파·방송자원의 산업적 활용 촉진

1. IMT-2000사업자 선정 및 다양한 서비스 보급

* 국제표준화, 기술개발 추세 및 국민경제에 미치

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 수, 사업자 선정 방식 등에 대한 기본방침을 마련(2000. 6)

-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정책방안을 최종 확정하고, 연말까지 사업자 선정 및 주파수 할당을 완료하여 2002년까지 서비스 개시
- * 유선과 무선, 통신과 방송, 음성과 데이터가 융합되는 추세에 부응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보급
- 전기통신사업 및 서비스 분류체계를 보완
- 새로운 기술에 기반을 둔 통합단말기를 개발하고 발신번호표시서비스(Caller ID) 도입 등 전화 부가 서비스를 개선
- 급격한 가입자 감소로 퇴출 위기에 있는 무선 호출사업 등의 구조조정을 지원

2. 경쟁의 촉진과 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

- *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 정도에 따라 유연한 요금조정이 가능하도록 가격경상제 도입 검토 등 요금제도를 개선
- 보편적 서비스의 보전 비용과 통신망간 합리적인 접속료 산정을 위하여 표준 원가모형과 상호접속 기준 등을 마련
- 시내전화서비스 시장의 경쟁활성화 및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가입자 노선의 공동 이용방안을 강구
- * 국민들이 시외전화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국의 지역번호를 현행 144개에서 16개로 통합하여 시행(2000. 7)
- 전체 전화번호를 10자리로 통일하여 통화 접속 시간을 1~2초 단축하고, 향후 미래통신 서비스 수요에 대비한 번호자원을 확보
- 자신의 번호를 유지하면서 통신사업자, 가입지역 및 서비스 등을 변경할 수 있는 번호 이동성 제도의 도입을 검토
- * PC통신, 정보제공(IP) 등 부가통신사업을 인터넷과 연계하여 문자위주의 정보를 그래픽 위주

의 정보로 전환을 유도

- 전화정보서비스의 전국단일요금체제도입 등으로 전국민의 정보이용을 활성화

3. 통신이용 편의 증진

- * 국민의 통신비밀보호를 강화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
- 관련법률 개정 후 감청업무처리지침을 개정·시행
- 수사기관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자료제공 요건 및 절차를 엄격히 하여 개인의 통신 비밀보호 강화
- * 통신사업자간 양적 확대 경쟁을 질적 수준 경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실시
- * 이동전화, 시내전화 등 통신서비스의 이용약관을 이용자보호 중심으로 알기 쉽고 간편하게 정비

4. 전파자원 확보 및 전파환경 보호

- * 과거 주로 공공부문에서 독점적으로 활용해 온 전파자원을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
- 국제협력활동을 강화하여 위성궤도, 주파수 등 국제적으로 배분되는 전파자원을 최대한 확보
- 미활용 초고주파수(30GHz 이상)대역을 활용할 수 있는 시통신 방식, 부품기술 등을 개발하여 산업적 활용화를 촉진
- 국내 통신·방송망을 타국의 위성전파로 인한 혼신간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위성전파감시 센터를 설립(2001년 완공)
- *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, 측정방법 등 각종 기술기준을 제정

5. 우주통신 개발 및 방송기술의 발전

- * 국산 통신위성 개발을 추진하고(2005년까지 7백 75억원 투자), 위성이용을 활성화
- 유선망 구축이 어려운 교외 및 격·오지에 위성인터넷을 보급하여 인터넷의 보편적 서비스 실현
- 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고정밀측위시스템(DGPS)을 연계하여 중복·과잉투자를 방지하고 성층권비행선을 이용한 무선중계시스템의 기반 기술 개발에 착수
- * 방송의 디지털화 진전으로 통신망을 이용한 방송, 방송망을 이용한 통신 등 통신·방송의 융합현상에 적극적으로 대비
- 하반기 중 수도권 지역에서 지상파 디지털 TV 시험방송을 실시하고, 2001년부터 본 방송 개시하여 방송망 고도화 및 디지털TV수상기의 수출전략 산업화 추진
- 다채널 위성방송의 표준규격 제정, 유료방송시스템(CAS)검증, 응용서비스 기술개발 등 위성방송의 조기에 시행준비
- 케이블TV 및 라디오 방송의 디지털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대화형 디지털방송 등 뉴미디어 서비스의 기술기준제정, 표준화 및 응용서비스 개발을 지원

IV. 우정국 서비스 개선과 금융사업의 활성화

기본방향: 우정사업 책임경영체계를 확립하고, 우편 서비스 개선과 우체국금융의 활성화를 통해 경영확신을 가속화

1. 우정사업 경영체제 개편

- * 우정사업을 독립적으로 책임 경영할 수 있도록

정보통신부 소속기관으로 '우정사업본부'를 발족(2000. 7)

- 우정사업 본부장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되, 사업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
- * 정보통신에 우정사업본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'우정사업평가위원회'를 신설하고 동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공표

2. 빠르고 친절한 우편서비스 제공

- * 우편서비스의 개선 등을 통해 전년대비 5백억원이 증가한 1조1천2백억원의 우편매출액 달성 목표
- * 다단계의 우편물 처리절차를 우편집중국과 집배센터 중심으로 단순화·자동화하여 보다 빠른 서비스를 제공
- * 친절서비스 교육강화, 고객위주 우편이용제도 개선 및 우편서비스 품질평가를 통해 보다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
- * 고도화·다양화되는 국민의 우편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방문소포와 국제 특급우편의 서비스 품질을 개선

3. 우체국금융의 경영기반 확충

- * '99년 대비 약 4조원이 증가한 29조원의 자금

을 조성하여,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공공정책자금으로 15조원 지원

- 신상품 개발, 마케팅 강화, 고객관리기법 도입, 금융권과의 업무 제휴 확대 등 영업활동 강화
- * 우체국금융 업무의 정보화를 추진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, 21세기 선진우체국금융 위상 정립
- 최신·최대 규모의 우체국금융 전산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인터넷뱅킹 도입 등 첨단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
- * 장애인 예금·보험상품을 개발하고, 소년소녀가장 PC보급 등 다양한 복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우체국복지재단을 설립

4. 정보화 확산기로서 우체국의 역할 강화

- * 우체국서비스를 안내하고 각종 지역소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시·군·구 단위 우체국의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
- * 농어촌 특산품을 직거래하는 우체국 전자상거래 대상 품목을 확대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모범적인 전자상거래시스템으로 발전
- 인터넷을 이용하여 배달정보 조회, 방문소포 접수 등을 할 수 있도록 편리한 우편서비스 이용환경을 제공 